고구려 전성기의 건축을 드라마 세트장에 재현, 한류의 新허브

- 50년 견디도록 철골조로 기초 건설, 관광 패키지 상품화로 사후 활용 제고 -

드라마나 영화의 세트장을 ‘ 건물 이라 할 수 있을까?‘ 건물 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들어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넣어두기위하여지은집 이다. 세트장은 거주는물론사무도볼수없다. 게다가물건을 넣어 보관할 만한 곳은 더더욱 아니므로 ‘ 임시로간단하게세운 ’가건물로부르는것이옳을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트장이 드라마의 촬영이 끝나고 해체되는것이아니라 50년 내구연한을 갖거나 세트장을 중심으로 문화 박물관, 웰빙숙소를비롯한관광단지가조성된다면 더 이상 단순한 가건물이라부를 수는 없을것이다.

한국적이면서도 남국의 정취를 간직한 섬, 더할나위없이매력적인휴양관광지이 자국제자유도시로비상을시작한제주도에 이처럼가건물이라부르기곤란한세트장이 만들어지고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 건설

올 9월 촬영 예정으로 한류의 주역인 배용준이 주연을 맡은 사실만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태왕사신기 는 한 편의 사극을 넘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면밀히 계산된 드라마이다. 드라마 종영 후 세트장과 주변 지역이 명소로 부각되어 관광 수입에까지 파급을 미칠 것을 기획하고 있는것이다.

태왕사신기는 동북아를 호령했던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전성기를 다루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주)청암엔터테인먼트가 북제주군김녕리묘산봉일대 9,000여평에 18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을건설하고있다.

제작팀은 최강의 철기마 부대를 이끌고 만주지방의주인이되어대제국을건설했던 광개토대왕의 역사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등四神의신화적요소를가미해‘ 한국판 반지의제왕 ’같은 환타지 사극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특히, 역사상처음으로중국과대등하게 영락대왕이라는 칭호를 정하고, 가

는곳마다승리를거두어일생동안 64개의 성, 1,400여촌락을차지한광개토대왕의일대기는 현대인이 열망하는 영웅의 향수를 자극하기에충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광개토대왕의활약이그려질오픈세트장 규모는 궁궐 1,17평, 귀족 마을 232평, 저잣거리 386평, 외곽성 320평 등이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성을 보호하기 위해 내성을 둘러싼 못을 재현하기 위해 폭 7 12m, 총연장 70m의 해자도 만들었다. 화려하고웅장한스케일의궁궐에못지않게광개토대왕의 강력한 맞수인 연가려의 집 역시 대저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재원의받침이되었던태학관도눈에띈다. 청암측은 특히 해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조성되는 서민들의 저잣거리와 귀족 마을이 당시 생활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배경이 될 것인만큼건축양식과복식등에걸쳐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치는 철저함을 보이고있다.

태왕사신기세트장공사는지난4월착공되어 올 7월 말 완공 예정이다. 공정률은5월말현재 50%를기록하고있다.

기후와의 전쟁 - 우비 입고 공사 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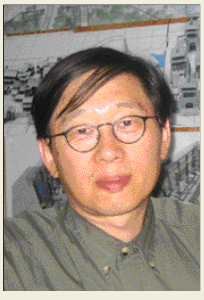
최근 들어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내리는 제주의 악천후 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건축 전문가와 건설인 200여 명이 출역해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느 세트장과는달리최소 50년의내구연한을갖춘세트장을 건설하기 위해 탄탄한 철골로 기초를 만든후그위에원목으로고구려시대의건축물을재현해가고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미술팀의 스케치 설계와 동시에 시공이 이뤄져야 할 정도로 세트장건설은공기가짧다. 이는시공팀이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자 애로점이다. 방송 기획에 2, 3년이 걸리지만 본격적인 구성은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트장 건설도 여느 오지의 건설 현장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기후와의전쟁을치를수밖에없다.

더욱이 안전을 위해 전망대를 설치해야 할정도로일일 50여명을넘나드는일본인 관광객들과9월시작될촬영에맞춰대거방

미니인터뷰 장석환 (주)청암엔터테인먼트총괄이사

" 모든 시설물에는 건설인의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



" 세트장건설의가장큰애로점은공기가짧다는점입니다. "

제주도북제주묘산봉지구에 건설중인태왕사신기세트장건설을총괄하고 있는장석환이사는4 5개월이라는공기를맞추기위해미술팀의스케치와동시에건설을진행하는것이가장어려운점이라고말한다.

이 현장은 다른 세트장과는 달리 50년이상의 내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철골조위에목조공사를 하고있다. 세트장을한류의발원지로하여주변일대가 관광 지역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못지않게 튼튼하게 짓고 있다는것이다.

그는 또 " 촬영이 끝난 후에는 세트장이 관광지는 물론 후학들에게 교육용으로좋은 현장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할계획 "이라면서 " 중국을 오가며 철저한 고증을거쳤지만국내에사료가 적어 애로가 많았다 "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학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도입에는 민감하여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역사와연계한고건축에대한연구는상당히취약하다고지적한다.

장석환 이사는 국내에서미진한사료는 중국현지에가서조사하여 공사를 지휘하고있다. 그는 " 다음 공정은궁궐의단청인데세밀한부분도철저히고증하여시공하고 있다 "며 " 사료를 남긴다는마음으로사명감을갖고공사에임하고있다 "고밝힌다.

설계및건축 전문가인장석환이사는 " 대형공공공사부터가건물으로분류되는세트장공사까지모든건설에는 건설인들의 정성이 배어 있기 마련 "이라며 " 화려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담아내는 세트장이자 한류의 허브, 또한후학들에게남길체험학습장을만든다는자부심으로악천후를이겨가고있다 "고말한다. CJ

50년이상의내구성을갖기위해주거용건축물못지않게견고하게건설하고있는현장.

문할 예정인 관광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장 건설인들은 폭우가 아닌 한 우비를입고공사를강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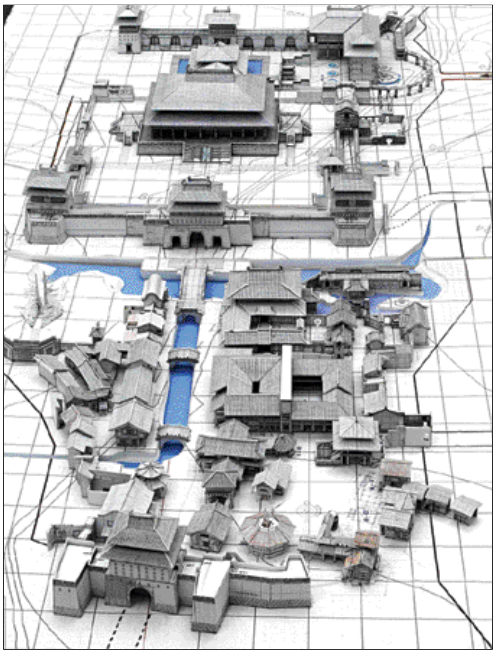
지반도공사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묘산봉 세트장 지역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뤄진암반지대이다. 그래서공사를쉽게하자면발파가최선이다. 하지만청암측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 발파를 지양하는데다 발파할 경우 암석 파편이 마치 팝콘처럼 튀기 때문에 굴삭기로 암반을 일일이 깨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고사리삼이라는 보호식물이발견되어2개월여에걸쳐한라수목원으로 전량옮겨 심은 다음공사를 진행하였다.

중국 오가며 고건축물 고증

청암엔터테인먼트는 태왕사신기가 역사에 신비를 가미한 환타지 사극이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1년여이상고증을거쳤다. 이과정에서사료부족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었다. 특히, 고건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역사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궁궐이나 저잣거리 등의 섬세한 구석까지 만들어내는 데 고충이컸다. 국내역사서들가운데그내용들이 상이할 경우 어떤 자료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중국 현지까지 찾아가 고증을 거쳐스케치를완성했다.

청암 측은 태왕사신기 세트장과 같이 역사와건축이만나큰부가가치를낼수있는 상품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 극소수의대학을제외하고는고건축학문의 연구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을비롯한학계가현대의토목건축기술에만치중해있다는지적이다.

세트장 모형 전경. 외궁과 저잣거리를 지나면 웅장한 대전이나타난다.



재현되고있는태학관.

역사, 풍광, 스타가어우러진 한류 중심지

이처럼 고구려 시대를 재현해내기 위해 심혈을기울인것은태왕사신기가드라마에만 그치지 않고 훗날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습 체험장이 될 것이라는희망때문이다. 관광상품화를통한부가가치 창출도 고려되었다. 더욱이 태왕사신기 세트장은 부근에 이미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건설 계획이 잡혀 있어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도 개발될 수 있다. 관광 단지화할 경우그에동반할관광사업아이템역시무궁무진하다.

실제 한류의 열풍이 불면서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지화되어 지역에, 그리고 국가에 적지 않은 관광 수입을 안기고 있는 사례들이있다. 신호탄이라할수있는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의 경우 지난해에만 연간 150만명, 사극 서동요 세트장에는 연간 70만명의관광객이다녀갔다.

태왕사신기세트장은벌써부터한류의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를 '2006 제주 방문의 해'로선언하고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엔화 환율의 하락으로 1 2월 제주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이 1만 5,2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다. 그러나, 태왕사신기촬영이알려진3월중순부터일본인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4월말 현재일본인관광객수는4만 808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오히려4.8% 증가했다. 이들 관광객은 아직 진입로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세트장에 왕복 1시간 동안 걸어서 다녀가고있을만큼열성이다.

오는 9월이면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개방될태왕사신기세트장은좋아하는스타의흔적과제주의아름답고독특한풍광, 그리고 한국의 고대 역사라는 삼박자가 세련되게 어우러져 흡인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글 · 사진: 정숙진 · 기자 · sjeong@cak.or.kr